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생명의 노래

김영문 브루노 신부

먼바다를 건너온 태풍이
 거친 바람과 폭우를 쏟아내던 밤
 창문 밖 언덕에는
 찢어지고 꺾인 상처들과 못다 이룬 꿈들이
 젖은 땅에 어지럽게 쓰러져 누웠다

맑은 아침 하늘이 와서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하늘 향해 곳곳이 견뎌 낸 생명의 나무에게
 비로소 축복 어린 아침 햇살과
 살며시 미풍의 위로를 건네주었다
 어둔 밤 내내 견뎌내고 참았던 눈물 반짝 흘러내렸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09/04/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32,715

현재 기부 금액 - \$ 32,165

현재 참가 인원 - 82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28

예물 준비 성가: 513, 216

성체 성가: 167, 496

파견 성가: 286

연중 제25주일(9/2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8명	46명	221명	174명	42명	541명



사회교리 담은 『새로운 사태』 (노동헌장)를 반포하고 시대를 꿰뚫는 예언자적 안목을 가진 교황 레오 13세(1810~1903)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가르침을 가톨릭 사회 교리라고 부른다. 인간의 발전과 온전한 해방을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응답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가톨릭 사회 교리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이다. 레오 13세가 1891년 5월 15일에 반포한 이 회칙은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해결 방안과 이론을 분석,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의 원리를 제시했다. 문헌의 첫 머리를 따서 『새로운 사태』로도 불리는 이 회칙에 대해 교황 요한 23세는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의 대헌장”이라고 불렀고 비오 11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교적 사회 활동의 안전한 기초가 되는 대헌장”이라고 칭했다.

이후 교회는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치고 반포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백 주년』(Centesimus annus) 등등 교황 회칙과 메시지, 사도적 서한, 교황청 문서, 세계 주교 대의원의 문헌과 대륙 주교 회의 문헌들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펼쳤다.

레오 13세 교황(1810~1903)은 1878년 전임 비오 9세의 뒤를 이어 교황으로 선출돼 1903년까지 25년 5개월 동안 교황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역사상 세 번째로 긴 교황 재위 기간을 기록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빈첸조 조아키노 페치(Vincenzo Gioacchino Pecci)로 로마 남동쪽의 아나니 인근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예수회 교육을 받은 그는 이후 로마 신학교와 로마 귀족 학원에서 철학, 신학, 법학을 공부했고 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1837년에 사제로 서품된 그는 이듬해에 베네벤토의 총독이 됐고 1841년에는 스피레토와 페루지아 총독

을 역임했으며, 1843년에는 벨기에 주재 교황 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때 산업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으로 시찰을 다니면서 산업혁명 이후 야기된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 눈뜨게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가톨릭교회의 입지가 어려워졌음을 깨달았다. 이후 페루지아의 주교로 임명된 그는 30여 년 동안 사목 활동에 전념했는데, 1853년에는 추기경으로 서임됐고 교황청 국무 장관이 사망한 뒤인 1877년에는 교황청 회계원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교황 비오 9세가 서거한 뒤 교황 선거를 주관하게 됐는데, 세 번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레오 13세 교황의 치적은 무엇보다도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 외교적으로 능란한 수완을 보여준 레오 13세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때에 교황직에 올랐다. 그는 교황에 즉위한 뒤 유럽 제국의 귀족들과 국가 원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상호 화해와 이해에 대한 열망을 표시했다. 이 메시지에 담긴 그의 열정은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의 외교적 긴장관계는 해소되지 못했고 그의 재위 중에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호전되지 못했다.

레오 13세가 교황이 되기 전부터 독일에서는 이른바 “문화 투쟁”(Kulturkampf)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가톨릭 교회를 국가 통제 아래 두기 위해 1871년부터 1887년까지 프로이센과 전 독일 지방에 걸쳐 벌였던 교회와 국가 사이의 투쟁이다. 교황은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에 문화 투쟁의 종식 가능성을 내비쳤고 비스마르크의 협력을 통해 악화됐던 관계가 호전됐다. 이후 교회를 반대하던 악법들이 차츰 폐기됐고 상호 평화 사절을 파견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 투쟁은 막을 내렸다.

한편 레오 13세 교황의 사상과 정책의 기본 원리는 그가 발표한 많은 사회 회칙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가 발표한 여러 회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회칙이 바로 『노동헌장』이다.



산업사회의 노동자 문제라는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 교회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인식하고 어떤 방향에서 사회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노동헌장』이 지닌 근본적인 관심사는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였다. 문헌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원리를 제시하고 소외된 가난한 이들, 특히 노동자 계급에 관심을 표명했다. 레오 13세 교황은 이 문헌을 통해서 개인을 도덕적으로 퇴락시킬 수 있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인권이나 종교적 복지를 외면하고 사회 복지만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를 경시하는 사회주의를 모두 단죄했다.

『노동헌장』의 이러한 가르침은 가히 예언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는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냉전을 겪었지만,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격변은 교회의 시대를 꿰뚫는 안목을 증명해 주었다. 자본주의 진영은 20세기 초반,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했고 사회주의 체제들은 최근에 와서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경제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통제를 축소했다. 결국 자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각기 비난하던 노동헌장의 노선에 스스로 접근한 것이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 일시: 10/4(토) 10:00 - 성모 신심 미사

2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10/4(토)-10/5(주일)에 시애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Black and Indian Mission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흑인과 인디언을 위한 복음화 프로그램과 교구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추석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10/2(목)까지 미사지향 예물을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10/5)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습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6 구역 음식 봉사

- 9/28(주일)음식 봉사: Redmond 구역
- 메뉴: 제육백반

7 부모 교육 프로그램

- 대상: 자녀를 둔 30~40대 부모, 선착순 20명
- 기간: 10/11, 10/18(토) 4PM(2시간)
이후 미사 참례
- 강사: 신정희 교수(아동학 박사, 아동청소년 상담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임
- 참가비: \$10
- 신청: 본당 사무실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8 25-26년도 학부모 전체 회의

Sunday School/Confirmation Class 학부모

- 일시: 9/28(주일) 12:30, 101호 교리실
 - 대상: PreK-12학년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님
 - 안건: Sunday School/Confirmation Class 1학기 계획 안내
- 학부모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베드로회 회원 모집

베드로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양대석 엘리야 206-334-7050

10 Safe Environment Manager 모집

본당 Safe Environment를 관리해주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바랍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을 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

- 1) 축복받은 성경 읽기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주1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팀 구성: 창세기반, 탈출기반, 레위기반
- 대상: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자분들
- (2)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생활화하는 그룹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 과정:

- 창세기 그룹 - 그룹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 탈출기 그룹 -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치신 분들
- ★ 모임 시작: 반/그룹별로 추후 연락
- ★ 담당: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 ★ 신청: 본당 사무실

12 시사 영어 특별 강의 안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인 신자분들을 위한 강의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최신 시사와 건강 관련 뉴스를 주제로 쉽고 친절하게 영어를 지도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11am-12am
10시 미사 후
- 강사: 송인성 베드로(PhD)
- 장소: 101호 교리실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1 티모 6,11ㄱㄴ-16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6,19-31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9/14 집계)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 신부님, 성효진 엘마, 오세영 헨리, 이진국 바오로, 신인철 토마스, 신경협 토마스, 구현우 바오로, 이승우 크리스토퍼, 박민수 이나시오, 신철순 에드워드, 홍종미 안젤라, 이항기 파비아노, 노성진 데레사.

모금 총액 \$23,8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원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Lina Wellness Clinic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다이어트약/영양 수액주사 Linawellnessclinic.com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갈비·오징어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수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30/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8/25)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담화 (2025. 9. 28)

이주민, 희망의 선교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모든 이는, 지속되는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안감,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에 대한 위협이 커질수록, 세상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고향을 떠나 피난처를 찾는 이주민과 난민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날의 풍요로움과 장밋빛 미래 전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경제 위기 속에서 마약 중독률과 자살률이 높아지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마주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결핍된 것을 찾고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며, 사람들의 활동을 고취시키는 갈망을 하나로 모은다.’고(1818항 참조)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믿음은 희망의 보증이며, 우리가 희망을 간직하는 것도 곧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기후 변화 등 위기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실제 위기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희망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마치 열정 없이 고백하는 사랑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희망’을 간직하고 길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들은 그 존재만으로 ‘희망의 상징’이며 낯선 곳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희망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위협을 이겨내며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희망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풍요로움을 지키고자 다른 집단을 배척하고 개인이 속한 한정된 집단만을 앞세우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풍요로움이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한편 이주민과 난민들이 간직한 희망은 그들의 노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웃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존재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다른 모습으로, 당신 교회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마음을 여는 기회로 인식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까”(히브 13,2).

‘이주민들의 희년’과 ‘선교 분야의 희년’에 맞추어 지내는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한국 사회의 모든 이주민과 난민이 저마다 삶의 터전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참된 복음 선포자요 희망의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이주민과 난민들과 이루는 만남과 나눔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직한 희망, 그 믿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싹을 틔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순례자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노드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순택 대주교